

소녀시대 티파니 10년 만에 첫 솔로

수만 명 대중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연예인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수많은 후배 그룹이 롤 모델로 꼽는 10년 차 걸 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27)가 홀로 나섰다.

11일 0시 데뷔한 지 10년 만에 첫 번째 솔로 앨범 '아이 저스트 워너 댄스(Just Wanna Dance)'를 발매한 티파니는 솔한 무대경험에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쇼케이스가 진행되는 한 시간 남짓 동안 쏟아낸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너무 떨린다"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그 증거다.

"그렇게 많은 무대에 서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아직도 긴장 되나고 질문하시지만, 그만큼 긴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앨범이다.

티파니는 "자연스럽고 싶었다"고 했다. 조금 더 티파니다운 '티파니 스타일'의 음악을 담고 싶었다. '소녀시대' 멤버로 보여준 화려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는 살짝 걸어냈다.

"저는 늘 항상 저한테 더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말,

쇼케이스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긴장 솔직한 취향 반영 '아이 저스트 워너 댄스' 타이틀 곡으로



데뷔한 지 10년 만에 첫 번째 솔로 앨범 '아이 저스트 워너 댄스(Just Wanna Dance)'를 발매한 소녀시대의 티파니(27)

이 모든 게 제 스타일이고, 저는 데뷔 초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티파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매 시기에 맞는 제 감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아이 저스트 워너 댄스'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댄스 곡이다. 그동안 '소녀시대'의 보컬이나 드라마 OST 등에서 보여준 호소력 짙은 발라드를 기대한 대중의 예상에서 벗어난 장르다. '소녀시대'에서 춤을 주력으로 추는 멤버는 아니지만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티파니의 솔직한 취향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앨범에는 티파니가 작곡하고 '소녀시대' 멤버 수영이 가사를 쓴 '왓 두 아이 두(What Do I Do)', 트렌디한 팝 댄스 곡 '토크(Talk)', 세련되고 몽환적인 알앤비 팝 '풀(Fool)', 티파니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한 힐스인 어 라이프 타임(Once in a Lifetime), '썸' 상태의 애매한 감정을 표현한 '옐로 라이트(Yellow Light)' 등 여섯 곡이 담겼다.

"한국에 오면서 10대 때 꿈꾸던 모습은 '소녀시대' 멤버들과 함께 이뤄졌고, 새롭게 상상한 저의 모습을 이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뒤에도 더 큰 무대에서 여전히 노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티파니는 12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이어간다. /이성주기자

박태환,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자 명단 제외

수영스타 박태환(27)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팀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태환을 제외한 22명의 올림픽 출전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다.

박태환은 지난달 끝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4개 종목(자유형 100m·200m·400m·1500m)에서 올림픽 A기준기록에 진입했지만 약물 사용으로 인한 징계의 후폭풍으로 명단에서 빠졌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7월중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B기준기록 선수들에 대한 출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젝스키스, YG와 계약...16년만의 컴백 초읽기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의 16년 만의 컴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일 YG엔터테인먼트는젝스키스 멤버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연예계를 떠나 사업에 종사하는 고지용과는 계약하지 않았지만 공연·음반 등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1997년 1집 '학원별곡'으로 데뷔한젝스키스는 '불쌍품사', '커플', '너를 보며' 등 히트곡으로 2000년 5월 해체하기까지 3년 동안 짧고 굵게 활동하며 당시 H.O.T.와 쌍벽을 이루는 인기를 누렸다. 최근 MBC TV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 특별 무대에서 16년 만에 여섯 명이 함께 무대에 섰다.

YG는 "항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직접 나서 영입한 만큼젝스키스의 새로운 행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주기자

전북현대, 호화멤버 맨시티와 여름 평가전 추진

성사된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 예상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올 여름 맨체스터 시티와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관계자는 11일 "맨시티가 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전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맨시티가 후원사인 넥센타이어를 위해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기간 평가전을 치른다면 전북과 경기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맨시티는 2011~2012·2013~201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유럽의 강호다.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강에 진출했다. 선수단의 명면도 화려하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세르히오 아구에로를 필두로 다비드 실바, 케빈 데 브루인, 사미르 나스리,

빈센트 콤파니, 조 하트 등 쟁쟁한 스타들이 포진해있다.

평가전이 성사된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는 7월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치르고 3일 뒤에는 중국 선전에서 도르트문트와 친선경기 일정이 있다.

한국 방문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월 내내 뻘뻘한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전북도 7월30일 광주FC와의 경기를 마친 뒤에는 10일 간의 휴식기에 들어간다.

전북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럽 팀인 만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일정이 안맞으면 이야기가 오가다가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8월 말은 서로가 뻘뻘하고, 맨시티가 8월 중에는



맨시티는 2011~2012·2013~201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유럽의 강호로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강에 진출했다.

시즌을 시작하니 그 전에 경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맨시티는 내년 시즌부터 호세 과르디올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사령탑

에 앉힌다.

한국 방문 시에는 파르디올라 감독이 선수들을 이끈다. /김민근 기자

장수서 도지사직장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전라북도 도지사직장인 생활체육대회가 전라북도 21개 축구동호인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11일부터 12일까지 장수군에서 열린다.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전라북도 및 장수군 축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체육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엔 장수군청, 임실군청, 세아베스틸, 35사단, 타타대우, 전주페이퍼, 휴비스, 한국GM, 예수병원, 일진, LG생명, 전북체육회, 완산경찰서, 고창군청, 정읍시청, 전주대학교, 농어촌공사, 김제시청, 익산시청, 덕진경찰서, 전북도청 등 총 21개 직장인축구가 참가. 장수공설운동장과 장수한누리종합운동장, 천천체육공원, 장계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다.

이번 경기는 핼린저리그(사기업팀)와 스페셜리그(공공기관)로 나눠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리그 및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스타강림 측 "기획서 도용 의혹 법적으로 대응"

한중합작 예능 프로그램 '스타강림' 측이 기획서 도용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스타강림' 제작사 K 콘텐츠는 표절 논란과 관련, "중국 산둥TV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체에 불명확한 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방송 콘텐츠 제작사인 컨텐츠플래너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스타강림' 제작사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기획안과 '스타강림'의 내용이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